

<서평>

## 가벼운 일상, 그러나 가볍지 않은 문화 읽기

김형준.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이매진. 2012.

강 윤 희\*

4번의 지하철 여행. 낙성대역에서 안국역까지 왕복, 그리고 다시 낙성대역에서 일산 대화역까지 왕복. 내가 『적도를 달리는 남자』를 완독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적도를 달리는 남자』는 ‘달리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만큼 쉽게 읽히고, 또 재미있다. 생생한 현지 조사 경험담이 살아 있는 이 책은 독자를 흡입하는 힘이 강력하다. 지난 20여 년 간 인도네시아 사회 문화와 종교에 관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내었던 전문 문화 인류학자의 목소리이지만, 이 책에는 그 전문성과 학문적 진지함이 줄 수 있는 부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찌면 아주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저자의 현지 경험과 무용담을 어떤 때는 조곤조곤, 또 어떤 때는 흥분하여 이야기 해 주며 어느새 독자를 인도네시아의 낯선 곳으로 인도한다. 함께 칙칙한 자카르타의 공항에 도착하고, 불합리한 줄서기에 분노하며, 개울가 화장실과 코코넛 우유국에 당황하다가 도, 아낌없이 도와주는 현지 친구에 고마워하고, 음식을 같이 하며,

---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yhkang@snu.ac.kr.

내 몸 속에 꿈틀거리는 초자연적 힘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않다.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책에 담긴 많은 일화는 여러 층위로 되어 있어서, 독자의 흥미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여러 깊이로 읽힐 수 있다.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라는 부제에 걸맞게, 이 책은 ‘깊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저자는 ‘루쿤’, 또는 ‘표면적 화합’이라는 인도네시아 자바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질과 함께, 한국인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표리부동’적 행태와 감정 절제가 루쿤을 이루는 중요한 문화적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밝힌다(제 5장). 뜨거운 땀별 아래서 밥통 하나를 부치기 위해 이 곳 저 곳 방황하였던 황당한 길 찾기의 경험은 현지 사람들의 정보 제공 방식에서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나아간다(제 7장). 족자에서 만난 발 마사지를 해주는 청년과, 인도네시아의 운송 수단 중 하나인 배착(삼륜 자전거) 운전수와 의 만남은 자본주의의 논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제 8장). 이렇듯 『적도를 달리는 남자』는 가볍고 재미있는 일상적 이야기를 결코 가볍지만은 않게 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상당히 심도 깊은 인류학적 분석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치밀하다. 우선 각 절의 구성은 독자들이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상 여행 또는 가상 현지조사를 떠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여졌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첫 두 장,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기’, ‘초기 적응하기’를 통해서 독자를 인도네시아라는 특수한 공간과 시간으로 안내한다. 이어지는 세 장, ‘언어 배우기’, ‘이름 외우기’, ‘친구 사귀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연구 대상자들과의 라포, 즉 호의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연구를 할 수 없는 인류학적 현지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구 허가 받기’, ‘밥통 보내기’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연구를 할 때 피할 수 없는 관료적, 문화 관습적인 고충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한다. 끝으로 ‘마사지 받기’, ‘라마단 보내기’, ‘축복 받기’는 연구자의 구체적인 연구 관심,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이슬람에 대한 연구 관심과 더욱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특히 ‘라마단 보내기’와 ‘축복 받기’를 통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미 연구대상자인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바 사람들의 내부인적 관점을 이미 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독자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인들의 초월적 세계까지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치밀성은 이 책의 군데군데 소개되는 도표, 지도, 사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현지 조사 자료들에서 또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저자가 얼마나 현지 조사를 꼼꼼히 또 치열하게 수행하고 기록하였는지 알려주며,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당시 일화들의 생생함을 살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 허가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도표라든지(158 쪽), 밥통을 부치기 위해 찾아 헤매었던 동선을 그린 지도라든지(188), 조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자를 괴롭혔던 공무원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슬람식 기도의 기록(231) 등은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배가 시킨다. 나아가 라마단 기간에 상대방의 금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입 냄새까지 기록했다는 저자의 고백(225)은 저자의 현지조사 노트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까지 자극한다. 현지조사 노트의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은 인류학적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적나라하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자신의 첫 번째

현지 조사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장 운동’과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러한 ‘욕구’는 곧이어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과 대신 ‘개울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또 다른 황당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제 2장 ‘초기 적응하기’에서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가 마을의 모임과 행사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저자의 모습이나, 모임에서 받은 음식 바구니 안의 ‘큼지막한 닭다리 하나’와 ‘카스텔라 빵과 조그만 사과’(56)에 대하여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물’(55)이라고 호들갑스럽게 감동하는 저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인류학적 조사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인류학자의 모습이, 또 ‘인류학자도 사람이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러한 저자의 적나라한 이야기를 통해, 인류학자의 현지 조사과정은 연구자의 ‘삶’ 그 자체이자,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

이 책의 적나라함은 저자의 거리낌 없는 감정 표현에도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책을 더 적나라하게 만든다. 연구 대상자들과의 친화나 유대를 강조하는 인류학자가 일기어나 적을 법한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맨 낫’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유명한 트로브리안드 사회를 연구했던 말리노프스키도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은 자신의 일기에만 토로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전달될 인도네시아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이렇듯 적나라한 저자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거침없이 전달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의아함은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해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따뜻하다. 이야기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황당

함'과 '민망함',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저자의 인도네시아 사람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거침없는 비판과 불만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그가 이미 인도네시아 사람들 내부에 서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자의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타인'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향한, 자성적인 비판의 한 얼굴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적 입장의 체득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축복 구하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과 관행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몸소 체험한 일화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전통 믿음 체계의 전문가인 사부를 만나 온갖 어려운 수련 과정을 겪고 나서, 저자는 자신의 몸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초월적 힘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사회 세계 나아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외부자의 문제를 저자는 주체/객체의 구분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제 9장 라마단 보내기에서 저자는 자카르타에서 금식월(라마단)을 지내면서 이웃의 모스크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한동안 고생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그러한 고통의 이유는 바로 저자 자신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라마단을 지내고 있었던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모스크의 소음에 대한 일화를 마무리 하면서 적은 부분이다.

내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자카르타의 모스크에 갔다면 아마도 다른 양상이 전개됐을 것 같다. 제대로 항의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모스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며, 출근하듯 그 모스크에 다니며 간단한 조사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라마단 마지막 날의 탁비르는 소음이 아닌 감미로운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자카

르타 모스크의 탁비란이 내 조사지의 모스크와 어떻게 다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서.(241)

위의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저자의 ‘항의’나 ‘불평’은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저히 못 견뎌 항의를 하려 갈지언정, 그러한 항의는 또 다른 연구 대상자와 또 다른 연구 관심과의 조우를 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대면은 물리적인 소리로서의 ‘소음’을 ‘감미로운 소리’로 바꾸는 또 다른 의미의 창출 과정으로 나아간다.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인류학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서 낯선 것을 익숙하게, 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도록 만드는 현지 조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학 현지 조사의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즐거움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입문서로, 인류학이나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인류학 현지 조사의 성격과 방법을 보여주는 책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적도를 달리는 남자,’ ‘적도를 달리는 여자’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